

#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전북지역 시민단체 등 한목소리 ... 도의회, 건의안 채택

범국민 서명운동·국회청원운동 전개 등 활발한 움직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북 정읍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 공약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한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비롯,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담기 위한 각계 목소리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읍 정읍시민단체 등이 주축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주의의 효시"라며 동학농민혁명의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도 앞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추진위는 이날 "자유와 평등, 인권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5·18 정신과 함께 개헌 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3·1 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위혁명의 모태가 된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과소평가된 점을 들어 개헌 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 맨 앞에 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회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지역 공약에 담긴 점에 주목, 적극적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다.

5·18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및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 토론회에서 1987년 이후 30년만의 헌법 개정 국면을 맞아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다.

또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헌법전문수룩을 위한 광주운동본부'도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계승 및 헌법전문반영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헌법전문 수록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헌법학계, 정치학계 등 학계를 통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여론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희기자 kimyh@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함평군, 스마트 농업 발굴·육성 주력

전남대와 업무협약 체결 ...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전남대와 함평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대와 함평군은 지난 22일 함평군 청 소회의실에서 전남대 정병서 총장, 안병호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실정에 맞는 특산물을 발굴 육성한다.

양농농가의 경쟁력 강화, 밀원수 확보, 양봉 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품목 개발과 브랜드화를 한다.

축사 내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배양기 공급사업과 함평천지향우 명품화, 농업 분야 소득원 추가 발굴 등도 추진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이 농축산업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군민소득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화기자 hwang@

## “단풍처럼 붉게 물든 사랑노래 함께 불러요”

10월 20 ~ 22일 정읍사 문화제 ... 오솔길 걷기·소원등 달기 등 행사 다채



지난해 정읍사 문화제의 거리퍼레이드 장면. <정읍시 제공>

백제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정읍사'를 주제로 한 문화제가 늦가을 관광객들을 맞는다.

정읍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정읍사공원과 정읍천변 일대에서 '천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제 28회 정읍사문화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특히 콘테스트를 다양화해 관광객 모두가 즐기며 어울릴 수 있는 축제 변화 시도했다는 게 정읍시 설명이다.

거리퍼레이드 방식도 크게 바뀐다. 거리퍼레이드 구간을 시내권(정읍역 ~ 구 명동리유 ~ 정주교) 대신, 뱃꽃(아양교 ~ 정

동교 ~ 정읍사공원)로 변경하고 다양한 퍼포먼스와 흥겨운 음악으로 퍼레이드를 꾸려 축제의 주무대인 정읍사공원으로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형태다.

단풍시즌(10월 말 ~ 11월 초)과 맞물려 진행됐던 축제 일정도 앞당겼다.

정읍 구절초축제(10월 1일 ~ 15일), 정읍사 문화제, 내장산 단풍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줬다. 단풍 관광객과 축제 관람객이 물리면서 빛이진 교통 혼잡과 불편 등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정읍천변 경관조명은 뱃꽃나무 뿐 아니라 정읍천과 인근 다리에도 LED조명 등

을 확대, 설치하고 일대에 즐거거리를 갖춰 야간에도 관광객들을 붙들겠다는 전략이다. 'LED소망풍선 날리기', '일무미네이션 포토존', '소원등 달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을 위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걷기행사와 '정읍사 K-POP 청소년 축제', '정읍사 가요제' 등 젊은층들을 위한 공연도 기획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제장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류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전북도 성어기 맞아 불법조업 집중 단속

가을철 전어, 꽃게, 멸치 성어기를 맞아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군산시는 서해어업관리단, 전북도, 부안군 등과 공동으로 내달 5일까지 해상과 육지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어, 꽃게, 멸치 성어기에 따라 전남과 경남 등 타 지역 근해선망 어선이 선단을 이뤄 전북도내 해역을 침범, 조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에 따라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등은 물론 수협 위판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은 야간단속도 진행한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 ‘대면 진로 상담실’ 운영 전북도교육청 내달 1일부터

전북도교육청이 대면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내달 1일부터 진학상담 서비스를 해주는 '대면 진로상담실'을 가동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은 오후 3시부터 10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별도의 예약은 받지 않고 현장 접수 순서대로 상담해준다. 희망자는 학교 생활기록부, 수능모의평가와 전국연합평가 시험성적표를 지참하면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전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로상담실을 운영한다. /이종희기자 galee@

## 전주 이중호수에 생태놀이터 조성

시, 3억2000만원 투입

전주시가 이중호수 주변 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터로 조성한다.

시는 3억2000만원을 들여 이중어린이공원을 다양한 놀이와 학습, 체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로 조성키로 했다.

도심 한가운데에 생태놀이터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중어린이공원(1973m)은 야중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됐다 사설 노후화와 놀이시설기

준 부작함으로 일부 시설이 철거되면서 외면받아왔다.

놀이터가 조성되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흙과 물, 풀, 나무, 동식물 등을 갖춘 환경 속에서 놀이와 학습, 체험도 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전주시는 오감체험 놀이 공간과 비밀요새 놀이터, 보호자 휴게 공간, 운동 공간, 휴게시설 등을 갖춘 계획이다. 시는 앞서 생태놀이터 조성과 관련, 아동생각나눔단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 “예쁜 정원이 있는 식당은 어디?”

순천시 내달 5일까지 모집

예쁜 정원이 있는 식당을 찾습니다.

순천시가 다음달 5일까지 외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작은 정원(사진) 콘테스트를 연다. 생활 속 정원 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원의 도시에 맞는 외식업소를 가꾸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순천에서 예쁜 정원을 가꾸면서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수상된 업소 정원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원의 도시에 어울리는 외식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콘테스트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순창군 인계면 읍에서 5분거리 대지 1302㎡ 마물도 총용 7천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골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약산면 득암리 해수욕장점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원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팬션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별장주택 화순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도사용 주택 600평 3억3천 상당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평 124㎡ 일대 19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 2층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점 주가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9천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적적합 담양 봉산면 제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부안군 변산면 땅 1675㎡ 건물2층 430평 객실 43개 10억 가격조정됨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물 334㎡ 건물 상태 좋음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원
- 영암 산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 3천 매도 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신안군, 비금도-팻섬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산 3, 4, 5, 6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 관리지역
- 무인도, 육지에서 1km 지점
- 향후 개발가치 100억이상, 투자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 2억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